

[P4-3]**전북 일부 지역 초등학교의 아침식사 태도에 관한 연구 -학교 소재지를 중심으로-**

이채옥*, 김숙배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조리교육 전공*, 전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학동기에는 신체적, 정신적 기능의 발달이 활발한 시기이므로, 심신의 완전한 발육을 위하여 매일, 매식사의 영양섭취가 완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아침 식사는 학동기의 하루 섭취량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쳐, 건강 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또한 다른 끼니에서의 과식을 방지하는 등 영양학적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학동기 아동에 있어서 아침 식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초등학교 아동들의 아침 식사 태도를 학교 소재지별로 비교하여, 이들의 식생활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전라북도에 소재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 1,117명 (도시 420명, 소도시 273명, 농촌 지역 424명)을 대상으로 일반사항과 아침 식사 태도에 관하여 2002년 12월 설문 조사 하였다. “아침 식사 빈도”에 있어서 소재지별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p < 0.01$). ‘매일 먹는다’에는 소도시 (57.9%), 농촌 지역 (55.5%), 도시 지역 (54.7%) 순서로 응답하였고, ‘매일 먹지 않는다’에는 농촌 지역 (9.3%)이 가장 높게 응답하였으며, 도시 지역 (4.6%)과 소도시 지역 (4.4%)은 비슷한 응답 비율을 보였다. “아침 식사를 거르는 이유”에 있어서는 소재지별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식욕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등에 주로 응답하였다. “아침 식사의 형태”는 ‘빵과 우유’, ‘시리얼과 우유’ 형태에서는 소재지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밥과 반찬’의 형태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1$). ‘매일 밥과 반찬의 형태로 식사를 한다’의 경우 농촌 지역 (66.0%)이 소도시 지역 (58.1%), 도시 지역 (56.1%)보다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아침 식사 시 동반자의 유무”에 있어서는 소재지별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p < 0.001$). ‘혼자 먹는다’가 도시지역 (20.3%)에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농촌 (12.7%), 소도시 (10.1%) 순서였다. ‘식구들과 함께 먹는다’는 소도시 (81.0%)에서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으며, 이어서 농촌지역 (73.0%), 도시지역 (68.2%)의 순서로 응답하였다. 본 연구 결과, 초등학교 아동들의 아침 식사 태도에 있어서 학교 소재지별 차이를 보인 바, 초등학교 아동들을 대상으로 아침 식사에 대한 영양교육을 실시할 때, 학교 소재지가 고려된 실질적인 교육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